



평의 바람꽃

### 장성 백암산 '들꽃 여행'

어느새 봄이다. 누군가 제주도와 서울의 개화시기와 거리를 따져보고서 봄이 오는 속도가 시속 900m정도라고 계산했다. 어린이 길은 정도의 속도로 '산 너머 남촌에서' 봄은 북상하는 셈이다.

우리말 봄은 '벌'(陽)을 의미하는 고어 '벌'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자 춘(春) 역시 '뽕나무 상(桑)'의 상형문자와 해를 뜻하는 '일'(日)의 상형문자가 합쳐져 만들어졌다고 한다. 봄 햇살을 받아 뽕나무 어린 새순이 돌아오는 날을 뜻하는 회의문자(會意文字)=둘 이상의 한자가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선조들은 세계질 가운데 봄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햇살과 새싹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광주출신 이성부(1942~2012) 시인의 시 '봄' 표현처럼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잊었을 때에도 찾아오는 봄이다. 새봄을 맞아 정성껏 북하면에 자리한 백암산(높이 741m) 자락으로 야생화를 찾아 떠나보자.

# 살며시 바라보니 살포시 깨어난 꽃

◇겨울바람 속에서 피는 들꽃=백암산 야생화는 뽕바람(北風)이 채가지지 않은 2월 20일경부터 돌아간다. 봄의 전령사라 하는 복수초(福壽草)보다 앞서 '변산 바람꽃'이 핀다. 이어 '평의 바람꽃', '붉은 대극', '현호색', '얼레지', '산자고', '털꿩이눈', '피나물', '애기 꿩이눈' 등이 차례대로 핀다. 손가락 2~3마디 정도의 자그마한 바람꽃의 이름은 약한 바람에도 심하게 떠는 특성에서 유래했다. 바빠 산행하다 보면 무심히 지나쳐버릴 만큼 자그마한 크기로, 발견장소에 따라 '변

세 탓에 노고초(老姑草)·백두옹(白頭翁)으로도 불리는 할미꽃은 손녀의 집을 눈앞에 두고 쓰러져 죽은 할머니의 넋이 산 골짜기에 핀 꽃이라는 슬픈 전설을 품고 있다.

더욱이 야생화는 아무렇게나 피는 것이 아니란다. 수필가 장돈식은 '변산엔 노랑꽃'이라는 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야생화를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적었다.

"아직 싹이 피기 전, 메마른 배경일 때 멀리 있는 벌과 나비들의 눈에 띄기 쉬운 색이 노란색임을 식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의 시작과 끝에는 노랑꽃만 핀다. 민들레도, 방이도 이른 계절의 꽃은 모두 노란색이라는 걸 자세히 관찰한 이들은 알 것이다. --이른 봄과 늦가을을 눈으로 얼룩진 산에는 노란색이 주류이고, 봄 가을은 붉은 꽃, 청산에 피는 꽃은 희다--"

◇별들을 유인해 수정하기 위해 꽃 피워='아하!'라는 감탄사가 자연히 나올 만큼 간단명료하게 자연의 이치를 꿰뚫은 문구다. 산자락에서 서둘러 봄을 알리는 생강나무꽃이 노랗고, 온산을 물들이는 진달래와 철쭉이 붉은 것은 모두 벌을 유인해 수정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벌들이 활짝 핀 꽃들을 차례차례 부지런히 방문하다 보면 벌들은 꿀을 모으고, 꽃들은 2세를 온전히 낳길 수 있게 되니 자연의 조화로우심을 보이지 않게 치밀하게 프로그래밍한 조물주에 외경심(畏敬心)을 절로 느끼게 한다.

백암산은 '백암 더부살이'와 '진노랑 상사화', '노랑 붓꽃' 등 760여 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20여년간 야생화를 꾸준히 촬영해온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백암산사무소(소장 김종달) 박성배 행정과장은 "야생화 탐방과 촬영시 자생지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 개화기에 서식지를 밟로 밟아 버리면 탐압(踏壓)때문에 꽃들이 채 피기도 전에 죽어버린다"며 "얼레지의 경우 씨가 땅에 떨어져 꽃이 피려면 5~6년이 걸린다. 희귀식물이 예쁘다고 캐간다 해도 개화기간이 짧고 실내에서 키울 수 없다. 서식지에서 자연 그대로 보전하려는 등산객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암산 기슭의 야생화를 하나하나 살핀 후 경내로 들어서면 만개한 고불매(古佛梅)가 반긴다. 봄 햇살아래 진한 매향(梅香)을 음미하노라면 어느새 봄기운은 성큼 내 맘속까지 깃든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제비꽃



현호색



만주 바람꽃



자주 피들 주머니

### 봄 산행길 무심코 돌아보면

얼레지·노랑붓꽃... 청초한 자태

꽃샘 추위에 숨털 날아갈까 조마조마

산'과 '만주'가 붙었다. 눈 밝은 조상님들은 야생화의 특성을 잘도 살펴 이름을 재치있게도 붙였다.

10일 백암산 입구에 차를 두고 천진산 생태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평의 바람꽃', '붉은 대극', '자주피들주머니', '털꿩이눈', '현호색', '피나물'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만발한 벚꽃을 시샘하듯 잠시나마 서설(瑞雪)이 내리자 꽃들이 일제히 꽃잎을 오무려 버려 아쉬움을 남겼다.

발길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 바라본 '평의 바람꽃'에게서 들뜬에서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겨낸 생명의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2주 전에 왔을때 본 '얼레지' 생김새는 바람꽃에 비하면 귀족적이랄까? 꽃대에 곧추선 6개의 길쭉한 분홍빛깔 꽃잎이 팔랑개비처럼 활짝 펼쳐져 봄 햇살을 한껏 안는 모양새다. 녹색바탕에 자주색 무늬가 있는 큼직한 이파리가 이색적이다. 돌연변이종인 하얀 얼레지도 눈길을 끈다.

그에 비하면 할미꽃은 수수하다. 하얀 솜털로 뒤덮인 모양



털꿩이눈



얼레지



할미꽃



흰 얼레지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